

대구주노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2012.11.18.(나해) | 제1809호



| 최후의 심판

한스 멤링
목판에 유채 (부분)
1467~1471년
폴란드 그단스크
국립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화면 상단 좌우의 천사들은 십자가, 채찍, 주님을 찌른 창과 못, 그리고 가시관을 들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수난을 상징하는 붉은 겹옷을 입고 계시며, 주님 좌우에는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그리고 열두 사도들이 자리 잡고 있다. 화면 아래쪽에 얼굴 부분만 보이는 이는 미카엘 대천사이며, 미카엘 대천사를 가운데 두고 천사들이 심판의 나팔을 불고 있다. 초상화의 대가인 멤링의 그림답게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다양하고 박진감이 넘친다.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24-32 참조)

평신도라는 이 이름과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택한 이들”이라고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맨 첫째이자 가장 뛰어난 제자는 성직자도, 수도자도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품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냅시다.

제1독서 다니 12,1-3

제2독서 히브 10,11-14,18

복음 마르 13,24-32

화답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11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김종롤 스테파노 신부 | 새방골본당 주임

초등학교 4학년 때 급훈이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정규 수업 외에도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공부와 취미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나 특기를 계발해서 각자 나름대로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선생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시절의 기억이 또렷한 것을 보면 선생님의 철학과 지도 방식이 특별했고 그를 통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변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대구주보를 보시는 모든 평신도 여러분께 주체적인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는 성품과 교회에서 인정된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성세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 중에 들고, 그들 나름대로 그

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1편 897항)

신앙생활의 주체는 본당 주임신부나 전교수녀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십분 발휘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삶에서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사회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즉 공동체의 으뜸인 교황과 그와 일치해 있는 주교들의 인도를 받는 지상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교황 비오 12세께서 연설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이끌 사람들은 바로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④

교회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반포한 문헌은 현장 4개, 교령 9개, 선언문 3개로 모두 16종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있고 중요한 것이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현장,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의 네 가지 현장들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앞으로 신앙의 해 동안 이 네 가지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들여다볼 현장은 짧게 교회현장이라고도 부르는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그 주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미사 드리는 곳,” “신부님이 사는 집” 등의 귀여운 대답도 나올 듯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공의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교회현장 §1)

‘성사’를 뜻하는 라틴말 ‘Sacramentum’은 ‘신비’를 뜻하는 그리스말 ‘Mysterion’을 번역한 것인데, ‘신비’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공의회의 가르침을 풀어서 말하자면, 교회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눈에 보이게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사



람과 하느님이 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 일치를 이룩하는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생각했고, 교회가 악에 물든 세상에 섞이지 말고 대립하여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그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음을,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안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47**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박상순 시몬 | 두류본당

지금 고령화 사회가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하지만 심증적으로는 이미 고령사회라 생각합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이고, 평일미사는 거의 전부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도 노인사목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당 차원에서 노인사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 중 노인들을 위한 단체는 노인(어르신)대학이 있습니다. 교구 차원에서 처음 시작할 시기에는 많은 본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개념이었지만, 본당 사정으로 문을 닫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교회는 신바람 나는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의 복음화가 있어야 생활의 복음화가 있을 수 있다.”(이문희 대주교님)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와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 본당(두류) 어르신 대학의 최근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루 시 한편 읽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글쓰기를 병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편지 한 줄 써본 적 없는데 어떻게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느냐며 걱정했으나 금년 5월에는 <하느님 만썬니다>라는 제호로 문집 창간호를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집에 실린 시로 3일간 거리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사진과 시를 보면서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삶의 주옥 편이었습니다. 어르신 대학의 교재는 자체 제작한 ‘조선의 사도행전’(김청란 비비안나 수녀 엮음)으로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면, 백발의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늘 함께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1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신자라면 신자답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직 지상에 살아 있으니 속죄할 시간이 있습니다. 보속도 할 수 있고, 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기도와 선행을 통해 공로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 연옥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연도라도 바쳐주는 영혼은 그나마 복이 있지만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 없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만간 마지막 날을 맞을 터인데, 그 때에는 나도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누군가가 아쉬울 것입니다. 마침 신앙의 해를 맞아 전대사도 풍성하니,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를 일컫는 여러 가지 화려한 명칭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모나리자’는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 중 하나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빈치는 ‘천재적인 미술가로 칭송받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인류가 하늘을 나는 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 지동설을 주장한 점 등을 보면 ‘타고난 과학자’나 ‘천문학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에 몰두한 ‘의학자’,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발명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스케치했던 자전거 모형도는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페달과 체인의 모양까지 갖추고 있고, 치밀하게 계산된 잠수함 설계도는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선보였던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던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이유로 함께 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다빈치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이든지 해보기도 전에 지레 포기하는 버릇까지 생기고, 잘하던 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주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이때 힘겨워하던 다빈치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 대신 그를 맡아 키우고 있던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빈치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던 날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일은 더욱 행복한 일일 것 입니다. 

■ 금주의 성인 성녀 엘리사벳



성녀 엘리사벳 (11월 17일)

헝가리 국왕 안드레아 2세의 딸로 태어나신 성녀께서는 공주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셨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자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에 들어가 기도 생활과 자선활동에 전념하셨다. 1231년에 선종하신 성녀께서는 자선사업의 수호성인이자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 3회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계시며 빵 제조업자 및 빵집의 수호성인 이시기도 하다. 엘리사벳 성녀께서는 그레고리오 9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다.

■ 교구장 대주교님 ‘나눔의 기적’ 자선 경매 기증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11월 7일(수)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평화신문에서 연중기획으로 진행 중인 ‘나눔의 기적’에 동참하시기 위해 도예가 김종숙(요안나)씨가 교구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성모상을 기증하셨다. 이번 경매는 11월 18일(일)부터 12월 5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낙찰금은 12월 7일(금) 교구 내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 ▲ 경매참여방법 : 전화(02-2270-2513, 2516) 또는 이메일(pbclove@pbc.co.kr)로 접수
- ▲ 마감 : 12월 5일(수) 오후 6시
- ▲ 입찰 시작 가격 : 300만 원
- ▲ 입찰현황은 평화신문 누리방 <http://web.pbc.co.kr/newspaper> ‘나눔의 기적’ 코너에 게시

■ 교구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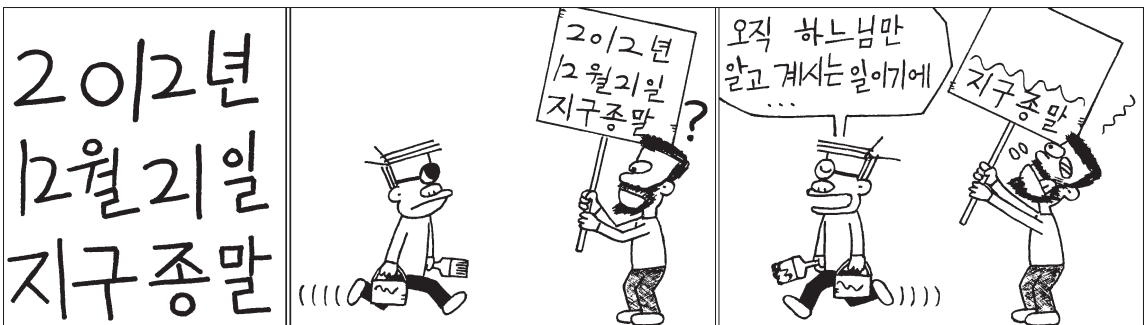
- ▶ 대구대교구 생활성가 축제
 - 1부: 고리콘서트 11.17(토) 19:30
 - 2부: 청소년 JAM페스티벌 11.18(일) 14:00
 -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강당
- ▶ 효자본당 성전봉헌식
 - _ 일시: 11.18(일) 15:00
- ▶ 제4회 성경암송발표대회
 - _ 일시: 11.24(토) 12:30, 대신학원 대강당
- ▶ 인평본당 견진
 - _ 일시: 11.25(일) 11:00



가르멜 수녀원의 일상을 그린 영화
사랑의 침묵(No GREATER LOVE)
 사랑의 침묵 재상영 안내
 개봉일 : 11월 22일(목)
 상영관 : 동성아트홀
 주보지참시 2명까지 1,000원 할인!

그날과 그 시간은...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11.24(토) 16:00

장소: 하양 수녀원(대구가톨릭대 후문)

문의: (010)5705-5004

마리아 영성피정(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11.21(수) 13:00~17:00

12.19(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바뇌의 성모 기도회 17주년 대피정

일시: 11.29(목) 9:30~16:00

장소: 삼덕성당

미사·강사: 오상철(토마스아퀴나스)신부

문의: 427-7543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12.15(토) 11:00~16(일) 16:00

인원: 선착순 (사전접수해야 피정가능)

회비: 5만원

문의: (010)5490-5345

내적여정 (애니로그램) 피정

일시: 12.7(금) 11:00~9(일) 14:00

장소: 경남 고성 수도원

피정비: 14만 원

주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교육 | 모집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대금,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송년 빛페제 음악제

일시: 12.1(토) 18:00~21:00

내용: 폐제미사 + 음악회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9056-9005

2013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모집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모집: 10.25(목)~11.22(목)

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개강: 11.15(목).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 보육 학위 및 자격증취득

문의: 1577-0361, www.cec.or.kr

제41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고: 1,3(목)~2,24(일) 3, 5, 7주 선택

아일랜드 학생들과 정규수업

대일반: 1.1(화)~2.17(일) 6, 7주 선택

국립 더블린대학교 or EID학원

문의: 그린피스E&T, (02)3446-4253

2013년 해외선교사를 위한 교육

19차: 1.21(월)~2.22(금)

대상: 선교사, 교포사목자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모집학과: 회화과, 도시환경조각과

그리스도교 미술학과, 시각디자인

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접수기간: 11.5(월)~23(금)

문의: (032)830-7012

충주성모학교(시각장애) 학생모집

대상: 시각장애인 유·초·중·고 재학생

지원: 순회교육 및 영·유아를 위한 교육

특전: 장학혜택, 보조 공학기기지원

문의: (043)852-1374

chungjium.sc.kr 연중 수시 상담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군중후원회 포항지역 월례미사	11월 19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미사	11월 20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구미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21일(수) 오후 7시	신평본당
대구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임	11월 22일(목) 오후 7시	성 모 당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4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이시우 신경
http://적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주|유|소
전와 한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허리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오십견/어깨통증 · 두통/어지럼증
· 무릎 관절통 · 스포츠손상 통증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offtop doctor's cosmetic®
이스라엘 사해 미네랄의 24시간 수분 보호막
전문의가 처방한 건강한 보습제 **오프토피!!**
대표 손 민 정(루시아)
www.offtop.com
(053)526-0363~4
지하철 2호선 두류역 2번 출구 달성피부과 3층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미소나라 미소나라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강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수맥흡침대
SM 수맥흡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행사 | 모임

범어성당 부설

마리아유치원 축복식

일시: 11.25(일) 15:00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하는

페이아르 샤르댕 연구회 공개강좌

8회 강좌: 11.20(화) 16:00

장소: 예수성심사녀회 성심교육관 (대명동)

주제: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강사: 이문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강좌반 모집: 초·중·고급, 전문가반

모집기간: 10.15(월)~11.20(화)

문의: (010)2506-6259

제13회 성인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1차 1.2(수) 출발 (8주, 12주)

2차 2.28(목) 출발(8주, 12주)

3차 3.24(일) 출발(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자격증빙서류, 마감: 채용시까지

문의: 256-6862 (개별 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않음

2013 마리아유치원 반 증설에 따른 신입, 경력교사 채용

문의: 745-2091

산자연학교 주방 조리원 모집

대상: 숙식 가능자

문의: 산자연학교, (054)337-0350
(010)3523-3473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오카리나: 12.3(월) 13:00

하모니카성가: 12.5(수) 13:00

천연화장품: 12.6(목) 12:30

명상체조: 12.7(금) 14:00

문의 및 신청: 254-6115

2013년 산자연학교 입학설명회

1차(초등): 12.1(토) 14:00

2차(중고등): 12.8(토) 14:00

장소: 산자연학교 강당

문의: (054)338-0530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1.19(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2013학년도 학교법인 선목학원

중등 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기간: 11.28(수)~30(금)

자세한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 참조

(<http://dgsunmok.or.kr>)

문의: 660-5161

백합어린이집 교직원 채용

대상: 관련학과 졸업 또는 예정자

안내

성탄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1.28(수),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녀녀 헌역사병(의경, 전경포함),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2013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순번 추천방식을 통해 접수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순번 추천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차 추천**은 사전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업체에 한해 진행합니다.

1차 순번추천 일시: 11.26(월) 0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사전신청 기간연장: 11.22(목) 까지,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2차 추천**은 추천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차 순번추천 일시: 11.26(월) 13:00

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구주보 홈페이지, 11월 4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레이저 · 모발이식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김기산(안드레아)
의학박사/전문의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하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강북 행복을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 아파트와
화성 센트럴파크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053)323-2875,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PLUS},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 IC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로) 958-0009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